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9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7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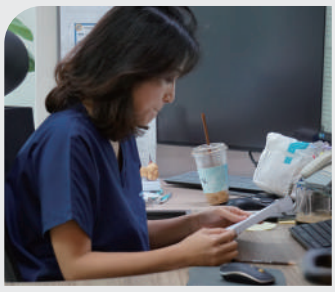


유튜브 채널로 시작하는 온라인 진료실 ‘Dr.신과함께’ 첫 촬영 (07.17)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 갑상선암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치료 방법이나 질환 자체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오해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주파절제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자주 받는 질문과 중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갑상선센터 신수영 센터장님과 브랜딩실, 뉴미디어팀에서 유튜브 ‘Dr.신과함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너에서는 갑상선 질환과 고주파절제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따로 대본 없이 실제 진료실에서 나누는 대화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환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몰라서 겪는 고통이 없도록 돕는 이 콘텐츠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 주세요.^^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 개소식 (07.03)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 개소식이 따뜻한 축하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의 개소를 넘어, 재활운동을 통한 회복과 희망의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룸재활운동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나눔으로행복한동행 김동현 팀장의 환영사와 내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병원장님의 개회사가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범석 교수님과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김선길 사무처장님의 외빈 축사가 이어지며 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고 그 의미를 더해주셨습니다.

이후 김동현 팀장이 청봉기념 이룸재활운동센터에 대해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는 폐회 선언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룸재활운동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심 거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척수손상파트 이용국 주무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 (07 中)



본원 척수손상파트에 근무하고 계신 재활치료1팀 이용국 주무님께서 올여름, 특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복지기관이 주관하며, 해당 지역의 재활 및 물리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의 뛰어난 임상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개인의 방문을 넘어섭니다. 넓게는 우리나라의 재활 의료 역량과 따뜻한 돌봄의 철학이 국경을 넘어 또 다른 현장으로 전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중심에 저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치료사 선생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죠.

약 두 달간의 일정 동안, 선생님께서는 현지 재활 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임상 활동과 교육에 참여하실 예정이며, 현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상호 발전의 길을 모색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국 선생님의 세심한 손길과 탄탄한 실무 경험이 현지에 큰 울림을 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원이 늘 추구해온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치료 가치가 세계 어디서나 공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신입직원 교육이 있던 어느날, 9층 소망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만남(1개월차), 병원소개 및 필수교육,
비전 수립 프로그램
두 번째 만남(2개월차), 입사동기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비전 돌아보기 프로그램
세 번째 만남(3개월차), 수습기간 과정의 노고 치하 및 축하,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5기 신입직원 첫 번째 만남 (07.12)

▷참 석 자:
간호팀 - 김희수, 이희주, 이태영, 박지연, 배진경
갑상선유방팀 - 김시향, 마정연

서툴지만 설레는 첫걸음,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신입직원 교육은 단순히 '일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인 '왜 일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함께 고민하며, 같은 시작점에 선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고, 낯설지만 따뜻한 조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천천히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꿈을 가진 신입직원들이지만, 마음속에 품은 다짐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동료로, 믿음직한 전문가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비록 아직은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일지라도, 이들이 품은 다짐과 비전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함께 웃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 시간이 신입직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신입직원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비전을 수립하고 서로 발표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 해나행의 뜻과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잘 전달해주셨습니다.
- 재코팀 팀장님 강의가 좋았습니다.
- 우리병원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 해나행에 대해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 병원생활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유익했습니다.
- 간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해나행에 대한 깊은 뜻과 의미를 잘 전달받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신입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세심하게 준비 되었던 간식에서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얼굴그리기 아이스브레이킹이 재밌었고, 간식도 맛있었어요. 감삼다

4기 신입직원 두 번째 만남 (07.11)

▷참 석 자:
간호팀 -이경은, 허미석, 김경훈, 이효정, 황연아, 김슬기
재활치료1팀 - 박민우
재활치료2팀 - 박현준
내과내시경팀 - 최민서, 황혜령
뉴미디어팀 - 서수원

두 번째 만남, 가볍지만 의미 있게!
근무시간 조정이나 사전 준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입사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깜짝 만남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조직 생활의 작은 긴장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위한 사전 준비의 시간!
다음 만남에서는 신입직원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자기성장 발표(PT)'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느낀 점, 나의 작은 변화, 앞으로의 다짐 등을 간단한 형식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장애인스포츠체험 (07.01)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는 일상회복 단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재활과 신체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는 세 분이 휠체어 탁구를 체험하기 위해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입원시기가 비슷한 세 분은 병원 재활기간동안 서로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었던 사이라 셋이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유OO님과 함OO님은 장애인스포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휠체어럭비를 비롯한 사격, 양궁, 탁구 등 여러 가지 스포츠 체험을 해 왔으며, 유OO님은 퇴원이후 휠체어럭비로 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휠체어 탁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스포츠 체험 시간을 가져 봄으로서 좋아하는 유형의 스포츠를 찾아 취미 및 생활체육 혹은 선수활동 등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병원에서의 재활을 마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계신 세 분을 응원합니다.







척수이야기 (07.07)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을 빙고게임을 통해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참여자분들은 빙고게임을 통해 용어의 의미를 배우고, 나아가 각 용어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행복 하모니' 이야기 (하모니카 프로그램) (07.22)

하모니카 프로그램이 어느덧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님의 재치 넘치는 설명과 유쾌한 진행 덕분에 참가자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모니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의 감정과 표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느리지만, 조금씩 소리를 만들어가며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하모니카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이 우리 일상에 잔잔한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이 여정,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스텐실 검정 에코백 휴대폰가방 만들기 그룹치료 (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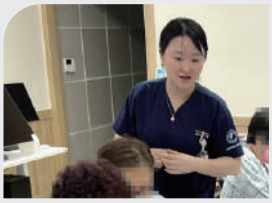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그룹치료 시간!

사회사업팀이 준비한 네 번째 시간,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스텐실 검정 에코백 휴대폰가방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스텐실은 투명 필름 도안을 에코백에 고정하고, 스펀지를 이용해 물감을 톡톡 두드리며 채색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판화 기법입니다.

가방에 원하는 위치에 도안을 배치하고 조심스럽게 색을 입혀가는 과정은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참여자분들은 오히려 그 과정을 즐기며 자신의 작품에 몰입해 나갔습니다. 색이 번지지 않도록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고, 완성된 도안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순간엔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도안이어도 각자의 손길이 더해져 모두 다른 작품이 탄생하는 모습은 감동이자 감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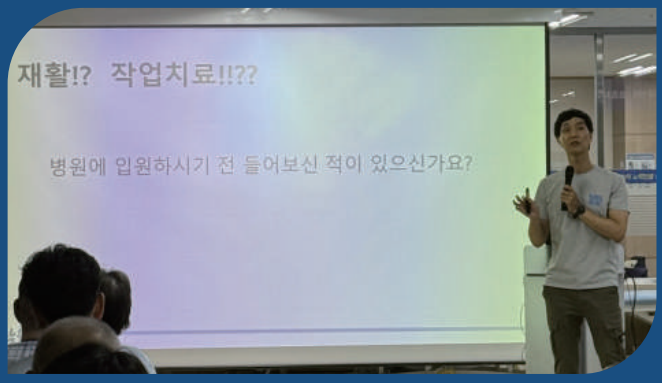




서툰 손놀림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그룹치료를 통해 함께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의 그룹치료 시간은, 참여자분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07.09)



재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치료!
(재활치료 2팀 백영수팀장)

슬기로운재활생활 네 번째 시간은 '재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작업치료'를 주제로 재활치료 2팀 백영수 팀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작업치료의 목적과 중요성,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참여자, 보호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영수 팀장님만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담긴 진심 어린 강의는 참여자,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재활 과정에서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자연스럽게 북돋아 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작업치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스스로의 회복 여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슬기로운재활생활은 참여자와 가족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7.05)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일정은 9월 6일(토) 오후 3시 30분, 7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7.11)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현○수, 하○조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태, 강○주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많은 환호와 축하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히 김완호 원장님과 담당 언어선생님도 함께 와주셔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소감과 6층 일상재활센터에 전시해놓은 게시판 글 읽고 참여자들께 박수와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낮병동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립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6대 꿀꺽왕 시상식 (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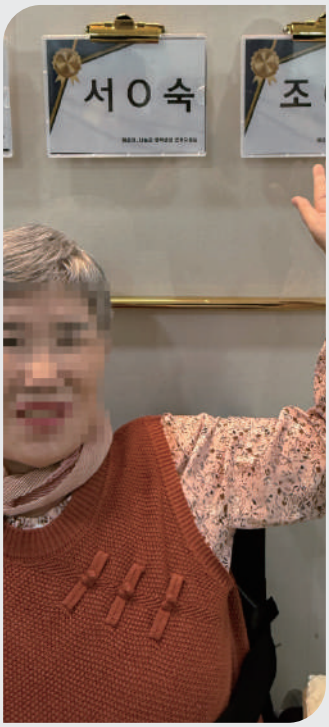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26대 꿀꺽왕은 조○선 참여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종결 후, 시상식에 앞서 병실에서 소녀소녀한 화장까지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ㅎㅎ

조○선님은 축하해주러 와주신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전하시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당장에는 생각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축하부탁드립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염관리팀
이무경 주무

특별 승진 (07.01)

감염관리팀 이무경 팀원의 주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1일부로의 특별승진은 그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값진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2분기 근접오류 보고 우수 부서 선정!

★★★

2025년 2분기 **최고의 환자 안전 지킴이**

6층 생활재활센터
7층 생활재활센터





근접오류 보고 TOP 5

6층 생활재활센터 3건 | **7층 생활재활센터** 3건
5층 생활재활센터 2건
8층 생활재활센터 1건 | **재활치료2팀** 1건



근접오류는 비난이 아닌 배움의 기회입니다.
환자 안전도 지키고! 포상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7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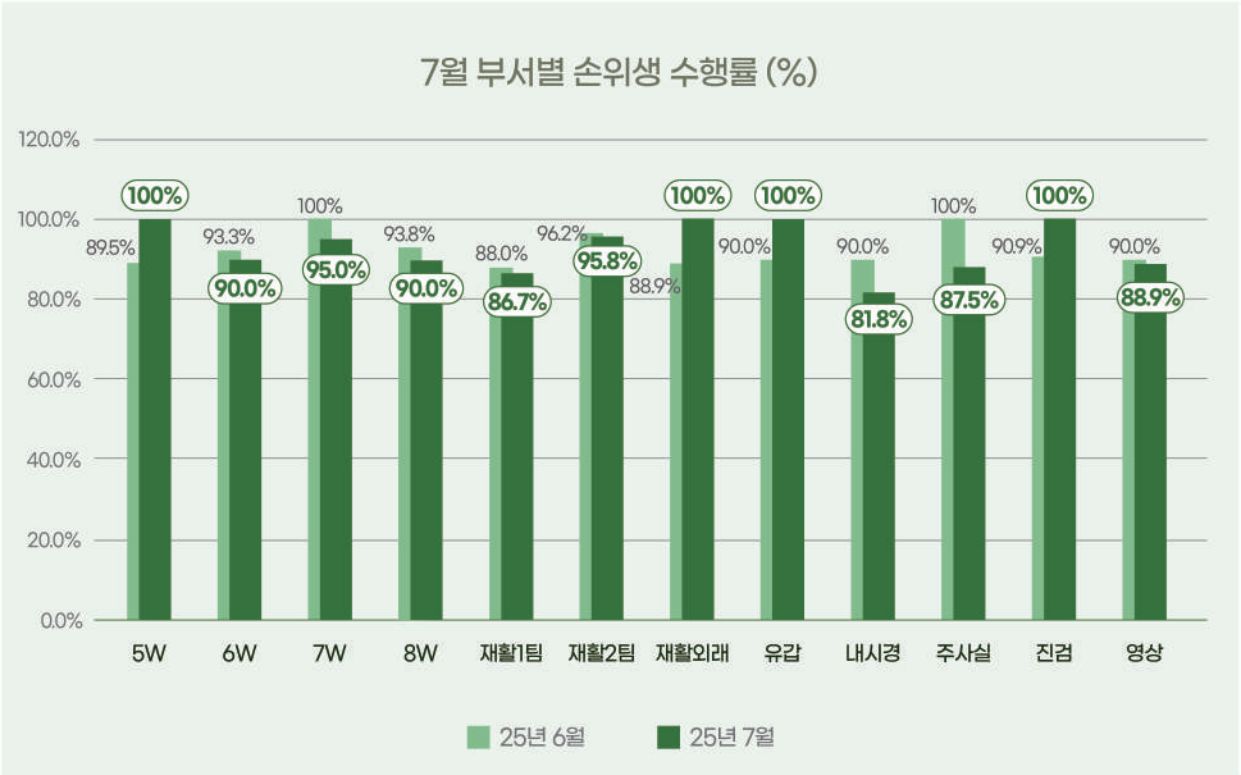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7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6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88	172	91.5%	- 0.9%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선생님, 퇴원 후에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50대 후반의 김OO님은 2023년 7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발병하여,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8월부터 본원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식당에서의 갈등 상황 속에 쓰러지셨고 본원 입원 후에도 이어졌던 사측과의 협의문제, 산재 신청, 보험처리 문제로 정신적 고통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두 아들을 홀로 양육해 오신 김OO님은, 아들에게 부양, 치료비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발병 후 많은 일들을 오롯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사회사업 상담을 통해 위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털어놓으며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진행사항을 살펴보며 치료비 지원 필요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는 소득금액 기준 미충족으로 주거급여만 수급하고 계셨던 상황이고 산재 신청은 불승인. 그러나 이외 문제들이 해결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는 기반을 천천히 다져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OO님은 퇴원 후 아들과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할 예정이지만, 자녀의 취업, 독립적인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 홀로서기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치료를 통해 스스로 수행하는 동작들이 많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아 나갔지만, 해본 적 없었던 활동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직면하는 문제들을 조금은 가벼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자아효능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해 사회사업팀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슬기로운재활생활, 그룹치료, 심리정서 지지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마음톡톡, 웃음치료, 하모니카, 이미용서비스, 행복미니도서관 이용까지, 사회사업팀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이를 통해 장애수용 과정을 경험하며 긍정적 변화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교육이 너무 도움이 됐어요. 이것만 준비하면 집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퇴원하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싶어요, 불교대학도 갈 거예요."
"왼손 사용이 어려우니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뜨개도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세미 만들어서 팔아 보려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 의지를 다져나갔고, 불편한 몸으로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나가며 퇴원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수시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는 변수가 항상 있었습니다.

"2달 후에 퇴원하기로 했어요, 가을로 늦췄어요, 조금 따뜻해지면 가기로 했어요..."

치료 종료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 문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생각하면 서로를 위해 퇴원을 늦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원에서의 치료를 끝으로 일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고,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연계를 해나갔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준비를 위해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방법을 다시 점검하고, 실내 안전바 설치 및 복지용구 준비, 변화하는 욕구에 따라 국비를 지원을 통한 요양보호사 취득 과정 안내, 불교대학 입학 과정 및 이동 시 이동 수단을 살펴보고,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여가생활 지속,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통해 재택근무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며 진짜 퇴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연계를 통해 119 안심콜 등록,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이용시설을 한 번 더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원상담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퇴원을 결정하고 밀려오는 불안감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셨지만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후 방문재활치료 계획이 있으신 분으로, 자택방문을 통해 또 한 번 만나 뵙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촘촘히 점검해 나가보려 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 colspan="6"><table>
<tr><th>성별</th><th>나이</th><th>보호유형</th><th>대상질환</th><th>발병일</th><th>입원기간</th></tr>
<tr><td>여성</td><td>58</td><td>건강보험</td><td>뇌내출혈</td><td>2023.07.</td><td>2023.07. ~ 2025.07.</td></tr>
</table></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모자가구
■ 자녀 : 첫째 아들 비동거(사회초년생), 둘째 아들 동거(취업준비)
■ 주보호자 : 첫째 아들</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사측,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부양의 부담, 치료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함</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기초생활수급자 비대상, 주거급여 수급
■ 경제적 어려움 있으나 퇴직금, 위로금, 보험금 등 수령 시 치료비 마련 가능</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거주(월세)
■ 주거환경 : E/V 있음, 문턱, 화장실 단차 없음. 월세로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 가부 확인 필요</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사측, 보험사와의 문제 해결을 통한 치료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
■ 자녀의 돌봄 부담 완화
■ 퇴원 후 사회참여 확대
■ 뜨개질 재능기부, 재택근무 희망</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 퇴원 희망
■ 치료계획 : 퇴원 후 1개월 후 방문재활 계획</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 심리정서지원 : 집단상담 마음톡톡PG, 행복하모니PG, 웃음치료PG
■ 토요그룹치료</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취득 과정 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 신청(65세 미만, 참여자 희망하여 진행)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119 안심콜, 장애등급 재심사 안내, 추후 필요 시 보건소 방문재활)
■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취업상담' 연계</td></tr>
</table>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환자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 값진 성과로 이어지다

환자안전 개선사례(부울경) 공모전 '은상' 수상 (07.11)

지난 7월 11일, 삼성창원병원에서 열린 환자안전 개선사례 공모전에서 저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이 '은상'을 수상하는 뜻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주최하여, 부울경 각 의료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안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투약조끼 착용을 통한 투약오류 감소' 사례를 출품하였습니다. 이 조끼는 간호사가 투약 중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환자와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간호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현장 적용이 쉽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QPS팀과 병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진정성 있는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품으로 팩스 겸용 레이저복합기를 받았답니다.^^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TRUST PATIENT SAFETY TOGETHER
지역환자안전센터
Regional Patient Safety Center

환자안전 개선사례 공모전

★ ★ ★ 참여해주신 모든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 ★

금상
좋은문화병원

낙상 예방위해 침대 사이드전용 매쉬소재
그물네트 제작 (간호사 간편한 설치, 불편 최소화)

은상
해운대나눔과 행복병원

투약전용 조끼 착용으로 투약오류 감소에 기여
(환자의 협조 유도, 간호사 투약에 대한 인식 강화)

동상
새롬재활 요양병원

치매환자 휠체어 적용 시 낙상예방위해
치매환자 적용 안전벨트 및 차량용 안전벨트 장착

7월 11일 금요일 시상식이 이루어집니다

성균관대학교 SAMSUNG 삼성창원병원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가족입니다.
07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8W) 강현희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이태영 간호조무사


재활간호팀(7W) 박지연 간호사


재활간호팀(7W) 배진경 간호사


재활간호팀(5W) 이현희 간호사


재무팀 박아람 팀원


재활치료2팀 박연주 작업치료사


총무팀 이승민 안전관리자

처음처럼

- 신영복 -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취업을 부탁해' 프로그램 (07.03)

지난 7월 3일(목), 사회사업팀에서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취업을 부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층 사회사업팀 상담실과 행복미니도서관에서 취업에 관심 있는 참여자분들 7명을 대상으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담당자와 1:1 대면 상담을 통해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군,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 후 구직 안내 및 이력서 등록을 통한 즉시 구직 신청까지 이어져,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오는 9월 2일 개최 예정인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안내하여 참여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분들께 뜻깊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안내 및 연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5층 사회사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 서비스

(07.15 / 07.25)

이 작은 나눔이 생활동 곳곳에
희망의 온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매월 이미용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와 참여자분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의 생활은 때때로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정성껏 머리를 다듬고 나면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까지 환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도 4명의 자원봉사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83명의 참여자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나눔을 넘어,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능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자 따뜻한 연대의 표현입니다. 매달 잊지 않고 병원을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 공모전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현실로!

안녕하세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 연구팀"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의 걷잡을 수 없었던 재미있고 창의적인 궁금증들을 공모 받아 연구주제로 모아보고자 합니다.

선정기준

1. 연구주제가 얼마나 **참신**한가?
2. 연구주제가 **실현 가능**한가?
3. 연구주제가 **실용적**인가?

대상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모든 직원 | **기간** 7월7일(월) ~ 8월29일(금) | **문의사항** 연구팀 탁현우 주무

공모해주신 분들과 선정된 분들에게는 재밌는 추첨과 소정의 상품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vol. 1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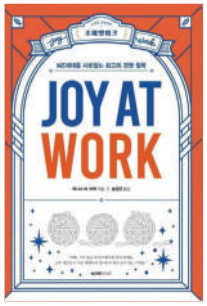
해나행 추천도서

이 달의 책 추천인



HR팀 박수진 팀원

1. 해나행 추천도서 ② "HR팀 박수진 팀원이 소개합니다"



Joy at Work

데니스 W. 바케 | 2021

"한 줄 추천사"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해나행에서 일하며 느낀 핵심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확인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도 큰 축을 차지하는데,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본받고 싶은 해나행 리더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또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밑줄 친 문장은요"

<P.199> 당신의 훌륭한 뜻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기나 성공을 가져다주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P.40> 바로 그것이었다. 일의 즐거움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사용해서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

많은 구절 중 저는 이 두 구절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기업의 성과에 도덕적 차원을 포함시켰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답변한 그 올곧음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은연 중에 복받기 위해서의 개념으로 핵심가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반성하면서, 저도 그것이 "단순히 옳기 때문에" 각기 다른 공정함으로 함께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며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즐거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아직은 먼 일이지만 어떤 성품을 지닌 일 잘하는 리더가 되야할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느꼈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삶과 일터에서 핵심가치를 지키고자 하시고, 일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 누릴 예정이신, 겸손과 사랑의 리더십을 행하고, 배우고 싶은 모든 나행인들께 추천드립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무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초계국수

“삼복 내내 삼계탕만 하지 말고
다른 보양식으로 해 주이소”

라는 요청에,

삼계탕은 중복으로 슬~쩍 미뤄두고
한 그릇 뚝딱하면 더위를 저 멀리 시원하게 날려버릴
초계국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선의 연회에서도
보양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그 초계국수는
닭은 통째로 손실하여
황기, 당귀 등의 약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인 뒤,
닭 육수는 차게 식혀 기름기를 깨끗하게 걷어내고,
잘 삶아진 닭은 뼈를 발려내고 살을 잘게 찢어 준비하여,
한 그릇에 면 담고, 식초와 겨자를 곁들인 육수를 부어,
그 위에 발라낸 닭살 등으로 고명을 올리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여름 보양식이 됩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을 맞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한 그릇의 초계국수로
더욱 짙어지는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영양팀은 이어지는 중복, 말복에도 입맛은 사로잡고,
더위는 날려버릴 보양식을 준비해 찾아오겠습니다.
삼복더위를 영양팀과 함께 이겨내 보아요~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7.30)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PR...
다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피: 피할 건 피하고
알: 알릴 건 알린다

PR에 진심인 영양팀이,
오늘 준비한 음식에 대해
대놓고 PR을 시작하겠습니다.

더위의 한복판, 중복을 맞아
감칠맛 폭발하는 닭죽에
큼지막한 닭다리가 새싹삼과 나란히 누워
여러분들이 잘 발골 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 앞에서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닭다리가 건방지게 누워있지 않도록
새싹삼으로 후려치며
담고 있는 건 비밀입니다ㅎㅎ

입가심으로
달달한 커피 한잔까지 마시면 완벽하겠죠?

이토록 완벽한 구성을
영양팀이 연출, 제작하여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구성과 맛에 감탄하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PR~ 끝.



너거 햄은 공부 잘하는데, 니는 와 글노?

비교는 성장의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존감을 해치는 칼날이다.

고사성어 '백중지간(伯仲之間)'은 본래 형제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비교 자체의 부당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해서 똑똑해 보이는 큰아들과 달리, 수학을 힘들어하는 둘째에게 나는 한결같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다'며 격려한다. 속이 천불이 날 때쯤이면, 자연스레 지난 시절이 떠오른다.



"네가 경훈이 동생이가?"

성장기 때 나의 '비교' 경험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름 초등학교 때는 6년 내내 반장을 맡았다. 결코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교과서 속 반장'은 아니었지만, 사교성이 좋았고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것 같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6학년 때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표에 '미'가 있었고, 사교성이 좋았다는 증거는 전교 홍보부장을 맡았던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움의 즐거움은 중학교 입학과 함께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3살 터울인 형은 전형적인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다. '응답하라 1988'의 성보라처럼 무뚝뚝하고 오직 공부만 하던 모습으로 기억된다. 가끔 친구들과 농구한다고 귀가가 늦은 것 외에는, 성문종합영어를 왼손에 끼고 수학의 정석을 오른손에 들고 다녔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욕설 한 번 하지 않던 FM이었다. 그가 중학교를 휩쓸고 졸업한 바로 그 학교에 내가 입학했고, 하필이면 형의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나의 담임이 되었다. 그렇게 나의 '비교 체험'은 새 학기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니가 깽후니 동생이가?"
라는 질문 뒤에는 어김없이

"너거 햄은 공부 잘하는데, 니는 와 글노?"

지금처럼 '중2병'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는 '비교 현장 체험'을 통해 점차 엇나갔고, 공부가 아닌 유행을 좇으며 지금도 함께 지내는 동네 친구들과 그 나이에 어울리는 일탈을 조금씩 시작했다. 동네 독서실을 핑계로 귀가 시간을 점점 늦추기 시작했고, 성적은 중학교 3년 동안 서서히 연착륙했다.

그리고, 나는 '인문계'가 아닌 '공고'에 진학할 뜻을 당당히 밝혔다. 어차피 공부도 못하고, 취미도 없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공고나 상고에 진학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록 가방끈이 길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으셨다. 그 시절 여느 부모들처럼, 당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무기로 자식을 설득하셨다. 결국 3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학부모 면담 끝에 인문계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실 인문계를 가기 싫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지긋지긋한 '비교'가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중학교는 주거지 중심으로 배정되어 자연스럽게 한 학교에만 다녔는데, 이 중학교 출신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중 A고에 70%, B고에 20%, C고와 D고에 각각 5% 정도 배정되었다. 소위 '뺑뺑이'라 불리는 제도였기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공부 잘하는 형은 70%나 진학하던 A고에 다녔고, 그곳에서도 재미없게 모범생 노릇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나는 A고에 가기 싫어서라도 공고에 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나는 기적처럼 5%였던 D고에 배정되었고, 형의 소문이나 흔적이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친한 친구는 없었다.

'비교' 없는 곳에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을까?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면 나는 성장기 때 '비교'라는 단어에 반항심이 있었겠지만, 사실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아이였던 것 같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나는 고3 때 야간 취업반에 들어가려다가 집에서 호되게 혼나기도 했고, 그림을 좋아해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다가 형편상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학을 좋아해서 4년제 '수학과' 진학을 희망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결국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3년제 '방사선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를 형과 비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과목 선생님들의 단골 레퍼토리였을 뿐이다. 부모님은 큰아들이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늘 잘해줘서, 오히려 작은아들에게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형편에 미안하셨는지도 모른다.

- 다음 페이지에 -

> 자녀가 영어는 잘하지만
> 수학은 못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그래야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을 다 죽이지만,
>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다.
> _고재학《부모라면 유대인처럼》(예담)

결국 나는 '비교'라는 틀 안에서 나를 잃어가며 성장했지만, 그 경험은 지금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준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형과의 차이는 열등감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거였다. 내 아이에게는 '비교'보다는 '이해'와 '응원'을 전하고 싶다.

저녁 식사 후, 식탁에 앉아 여전히 '책 읽는 척'하는 나에게 작은아들이 수학 문제집을 들고 온다.

"아버지, 3문제만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갖고 와봐~"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관세음보살' ㅋㅋㅋㅋ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39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7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